

금광기업 소유권 소송 항소심선 송원그룹 패소

세운건설 컨소시엄 1심 뒤집고 승소 송원측 “상고”...대법원서 판결날 듯

금광기업의 옛 주인 송원그룹과 현 대주주인 세운건설 사이에 벌어진 주식 소유권 소송 항소심에서 세운건설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송원그룹이 경영난으로 매각했던 금광기업을 되찾기 위한 소송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광주고법 민사 2부(부장판사 박정화)는 12일 1등송원, 송원문화재단 등 9명(법인 포함)이 세운건설 등 5명(법인 포함)을 상대로 낸 주식 명의 변경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지난 2011년 10월 금광기업 주식 60만5000여주(52.07%)를 164억6000여만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지만 피고들이 50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주지 않아 계약을 해

지하고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당시 작성된 특별약정서에 따라 주식대금을 청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계약해지가 부적법하다”며 맞섰다.

1심은 법원 허가를 받지 않은 특별약정서는 무효라고 보고 계약해지에 따라 주식 소유권이 송원 측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판결은 정반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약정서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금광기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새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명의를 소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라며 “금광기업은 회생절차를 조기 종료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만큼 회생기업 인수의 성공사례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환영했다.

송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할 방침이어서 양측간의 소유권 분쟁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고경주 송원 부회장은 “판결문이 아직 오지 않아 검토를 해 보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꼭 소유권을 되찾아 올 것”이라고 밝혔다.

금광기업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액이 3959억2900만원으로 전국 65위 수준이다. 2010년 5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들어갔으며 지난해 2월 세운건설 컨소시엄이 인수해 곧바로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세운건설은 인수 당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본사보다 11배가 넘는 금광기업을 인수해 건설업계에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최근에는 상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방화대교 접속도로 공사 시공사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효성, 국내 첫 택시용 CNG 충전소 완공

효성이 국내 최초의 택시용 CNG(압축천연가스) 충전소를 완공했다. CNG 택시는 지난해 말 택시발전법 통과에 따라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이 가능해져 전량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효성은 12일 경기 안산 소재 택시 회사인 상록운수사에 택시전용 CNG 충전시스템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350마력급 압축기 1기와 택시전용 충전기 4기로 구성된 이 시스템은 속도제어가 가능해 택시 4대를 동시에 충전해도 부하가 걸리지 않는다.

CNG(Compressed Natural Gas)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현저히 적은 친환경 연료로 연비가 l 당 평균 10.2km에 달해 LPG(액화석유가스· l 당 6km)보다 40% 향상되고 연료비도 l 당 1036원 수준으로 LPG(l 당 1065원)보다 저렴한 편이다.

특히 밀도가 0.6으로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되더라도 대기 중에 확산돼 화재와 폭발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CNG 충전 시스템에는 압축기용 소재 공급이 관건인데 효성이 지난해 6월 전주에 탄소섬유 생산설비를 준공, 용기 소재를 공급 중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호고속 임직원 100여명은 12일 나주 금성산에서 '금호고속, 제2차업 달성을 위한 시산제'를 열고, 올해 경영 위기 극복 및 안전 운행을 기원했다. <금호고속 제공>

중고차 감가율 29.6% 가장 낮아 가격 가장 덜 깎이는 차종 SUV

국산 중고차 시장에서 평균 감가율이 가장 낮은 차종은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인 것으로 조사됐다. SUV의 감가율은 대형 세단과 비교하면 평균 10%포인트 낮았다.

중고차 전문기업 SK엔카는 2011년식 주요 국산차의 감가율을 산출한 결과 SUV가 평균 29.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소형차와 경차가 각각 30.4%, 32.1%로 뒤를 이었고 준중형차는 33.4%로 조사됐다. 중형차는 34.5%, 대형차가 39.6%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모델별로는 2011년식 스포티지 R(디젤 2WD 최고급형)의 2월 중고차 시세가 신차 가격에서 21.2%(529만원) 떨어지는 데 그쳐 감가율이 가장 낮았다. 모하비(4WD KV300 최고급형)와 카니발 R(GLX R 스페셜)의 감가율이 각각 21.9%, 23.1%로 뒤를 이었다.

1~3위를 차지한 세 SUV의 감가율은 경차인 올 뉴 모닝(럭셔리)의 27.7%보다도 낮았다. 대형차 중에서는 그랜저 HG(240 럭셔리)가 23.5%로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JB금융, 광주은행 실사 노조 저지로 무산

노조측 “독립경영·상생방안 등 제시할 때까지 지지”

광주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JB(전북은행)금융지주가 12일 광주은행을 방문, 인수를 위한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JB금융지주는 지난 11일 예금보험공사와 광주은행 인수 관련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이날부터 6주간 광주은행 본점 등을 대상으로 은행 인수를 위한 실사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노조의 반발로 실사일이 연행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허련 전북은행 종합기획부장 등 4명으로 구성된 JB금융 실사팀은 이날 오전 광주은행 본점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노조원들이 진입로를 가로막아 “다음에 오겠다”는 짧은 말과 함께 인사를 하고 되돌아갔다.

김대욱 광은행 노조 위원장은 “JB금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광주은행과 지역민과의 상생방안, 광주은행의 독립전산시스템 유지 등 독립경영 보장, 인위적 구조조정 금지, 이익금의 지역환원 방안 등에 대해 어떠한 의견제시도 없었다”며 “진정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때까지 실사를 지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JB금융 실사팀은 광주은행의 순자산가치 등을 정밀 평가해 최종 가격협상에 반영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JB금융지주는 실사가 완료되면 예금보험공사에 매매대금 조정요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매매대금의 조정이 합의되면 4~5월 계약금 납입·주식매매계약 체결, 6~7월 잔금 지급, 금융위 위가 등을 통해 8월 내에 최종적으로 광주은행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JB금융은 지난해 12월31일 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로 확정됐다. /김대성기자 bigkim@

중진공광주본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24일부터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성장기 및 정체가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컨설팅은 ‘연계형 컨설팅’과 ‘특화형 컨설팅’(해외전문가·융합)으로 진행되며 올해 신규 추진되는 융합 컨설팅은 산업,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제품(서비스)을 사업화하는 과제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문의(062-600-3031).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새얼굴

“지역업체 참여 늘려 지역개발 선도”

유성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습니다.”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50대 청장에 취임한 유성용(48) 신임 청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도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 조기 집행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 지역개발 선도 기관으로서의 적극적

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정읍 출신으로 상안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국토부 도시정책과장, 철도운영과장을 거쳐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재벌家を 둘러싼 아슬아슬 로맨스 *

TV조선 주말드라마스페셜

비밀의 신부

기획 TV조선 제작 M 세네쿠스 2월 22일 부터 매주 토·일 저녁 8시 방송

극본 백영숙 | 연출 윤상호 | 이흥기 | 양진성 | 최일화 | 김서라 | 신은정 | 성혁 | 장아영